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에 관한 연구 -영국 TNA와 미국 NARA를 중심으로

이 은 영*

1. 머리말
 - 1) 문제의식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방법과 범위
2. 영국 TNA ‘토픽’ 메뉴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분석
 - 1) 영국 TNA의 교육 사이트 개요
 - 2) ‘토픽’ 메뉴의 ‘냉전’ 콘텐츠의 구조 분석
3. 미국 NARA ‘기록 수업’ 메뉴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분석
 - 1) 미국 NARA의 교육 사이트 개요
 - 2) ‘기록수업’ 메뉴의 ‘메카시’ 콘텐츠의 구조 분석
4.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
5. 맺음말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국문초록]

해외 보존기록관리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 서비스는 이제 주요 서비스 메뉴이다.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에선 해외의 교육용 프로그램 서비스 사례를 앞 다투어 소개하고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지만, 관련 프로그램의 소개 수준에 그치면서 심층적인 사례 분석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보다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내용 구성 및 구조적 특징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영국 TNA의 교육 사이트를 개괄하고, 주요한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인 ‘토픽’ 메뉴에서 ‘냉전’ 콘텐츠를 샘플로 선택하여 그 내용 구성 및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미국 NARA의 경우도 교육 사이트를 개괄하고 주요한 콘텐츠인 ‘기록 수업’ 메뉴의 ‘매카시’ 콘텐츠의 내용 구성 및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여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와 같은 일관성 있는 내용 구성 체제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일차 사료를 원활하게 해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학령별, 교과 간에 연계 활용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일차 사료 선별 시 텍스트가 포함된 문서 사료를 우선으로 선별한다. 다섯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는 반드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개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주제어: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일차 사료, 학습 자료, 학습 질문, 교수 활동, 교육 과정, TNA, NARA, '냉전' 콘텐츠, '매카시' 콘텐츠

1. 머리말

1) 문제의식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는 더 이상 잠재적 고객군 확보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차원이 아니다. 영국 TNA가 '러닝 커브(Learning Curve)'라는 교육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지난 2009년 교육용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의 전진에 배치하였을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 해외 각국의 국립 보존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교육용 프로그램 서비스는 빠지지 않는 주요 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아직 보존에 방점이 주어졌던 국내 기록학계에 해외의 선진적인 서비스 사례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기록학계에선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해외 서비스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보존기록관리기관에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연구 성과는 크게 해외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층을 겨냥한 교육용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 연구¹⁾와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을 위

1) 전금숙, 「공공 전문기록관리기관의 교육서비스에 관한 연구-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 서은경·정경희·최상희,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2006; 오향녕, 「역사교육의 또 다른 지평, '아카이브」, 『역사교육』 101, 역사교육연구회, 2007; 김희정, 「기록관의 교육서비

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방안과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²⁾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사례 분석이 그 구조적·내용적 특징까지를 포착하는 심층적인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함으로써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에 실질적 함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국내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이 주는 함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논의만으로는 연구 성과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영국 TNA는 지난 1997년 교육용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꾸준히 콘텐츠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현재 총 183개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어, 10여건에 불과한 국내의 개발 현황과 비교해볼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NARA도 총 65종의 교육용 콘텐츠를 ‘기록으로 하는 수업(이하 기록수업, Teaching with Documents: Lesson Plans)’이란 명칭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랜 동안의 준비와 경험에서 기인하였다. 영국 TNA는 1997년 처음으로 교육 전문가를 고용하면서 본격적인 ‘러닝 커브’ 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하였³⁾, 현재는 ‘운영 및 서비스부(Director of

스 사례유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008; 전수진, 「보존기록관리기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2008

2) 이윤경, 「아카이브즈의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2; 심성보,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구성 및 개발절차」,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8; 김인애, 「중등사회교육을 위한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방안 연구-국가기록원 기록포털 ‘나라 기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8; 김희경, 「아카이브 활용과 역사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2; 한현진, 「자원기반학습을 위한 기록정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8.2; 김태호, 「아카이브즈 ‘기록정보 콘텐츠’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2; 국가기록원, 『중등학생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사료콘텐츠 구축을 위한 모형 및 절차 개발 연구』

Operations and Services) 하부에 교육 및 아웃리치팀(Head of Education and Outreach)을 두어 교육 및 아웃리치 서비스를 전담케 하고 있다.⁴⁾ 미국 NARA 역시 기록서비스부(Office of Records Services, Washington, DC) 하부의 NARA 체험센터(Ctr. for the National Archives Experience)와 교육 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s) 팀에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가 존재한다.⁵⁾

때문에 이들 기관은 대상 연령 및 연계 교육과정, 교육 시 활용방안 및 주의 사항 등이 명시된 일관적이고도 구조화된 형태의 콘텐츠를 시기별로 다수 개발하여 서비스 중이다. 해외 보존기록관리기관의 흐름을 반영하고 국내 보존기록관리기관의 교육용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면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와 내용적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국내 기록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 등 해외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선진적인 교육용 프로그램 서비스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의 이론적 틀로 삼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해외 보존기록관리기관의 교육용 프로그램을 처음 소개한 것은 전금숙(2005)과 서은경·정경희·최상희(2006)의 연구이다. 전금숙은 트루만, 아이젠하워어 대통령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 등 비교적 여러 나라의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웹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3) Elizabeth Hallam Smith, "Customer Focus and Marketing in Archive Service Delivery: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 Vol.24, No.1, pp 36~53, (2003)
4) <http://www.nationalarchives.gov.uk/how-we-are-run/our-staff.htm>, [cited 2011.3]
5) <http://www.archives.gov/about/organization/telephone-list.html>, [cited 2011.3]

서은경 등은 영국의 TNA와 미국의 NARA, 그리고 미국의 LC(의회도서관)의 교육용 프로그램 서비스의 개요와 교수안(Lesson Plans)의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각 프로그램의 교수안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첫째, 우리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 중 기록을 이용한 수업이 가능한 과목, 즉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목록검색의 형태가 아닌 수업진행방법이 포함된 구조화된 형태의 교수안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기록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여 수업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오향년(2007)은 홍콩 공공기록관의 교육용 CD와 호주 NAA의 교육 도구를 내용적 측면에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교육도구가 일차 사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어떻게 사실과 사건을 구성하는 지,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역사의식을 형성하는데 일차 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김희정(2008)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국립 보존기록관리기관의 교육용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나라별로 보존기록전문가의 교육 서비스 유형, 교육 서비스에 활용된 기록물, 대상 이용자 및 주제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그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웹 기반 콘텐츠는 학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일차 사료를 활용한 교육 대상 영역은 역사, 사회뿐만 아니라 지리, 문학 등 다양한 교과에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심성보(2006)의 연구는 영국 TNA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가 ‘교수학습 활동용 추가정보’와 ‘본연의 기록정보’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전형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의 구조적 분석은 이후 국가기록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발한 오프라인 역사교육용 교재인 ‘기록이 있는 역사 교실 I’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김희경(2008), 김인애(2008), 김태호(2009) 역시 해외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의 유형 및 교사용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례 연구는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소개 및 콘텐츠의 유형에 대한 개괄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단, 김태호의 경우 ‘러닝 커브’의 기존 심층전시(Exhibition) 콘텐츠의 하나인 ‘제2차 세계대전’의 구성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일차 사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진행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해외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대다수 사례 연구의 주안점이 다르고 분석 수준이 다르다 보니 사례 연구는 많아도 정작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이론적 기반으로 삼을 만한 사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사례 분석의 결과를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반영하려면 교육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수준에 머물러서는 부족하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성과물 중 일부는 세밀한 수준, 즉 실제 교육용 콘텐츠의 내용 및 구조, 수업진행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콘텐츠의 내용적·구조적 차원의 특징으로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영국 TNA와 미국 NARA에서 제공하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개요 및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중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교육용 프로그램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심성보, 2007)의 샘플을 선정하여 그 내용적·구조적 특징을 심층 분석한다.⁶⁾

6) 본고의 연구대상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수업의 교재로 활용될 목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심성보(2007)의 기록정보콘텐츠 정의에 따른 것이다. 영국 TNA에서 제공하는 ‘토픽

영국의 경우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라 할 수 있는 것은 ‘토팍’ 메뉴의 일부 콘텐츠와 ‘레슨’ 메뉴에 게시된 콘텐츠가 해당한다. 본 연구는 교수·학습 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를 심층 분석하기 이전에 영국 TNA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괄한다. 이를 위하여 영국 TNA의 홈페이지의 교육 사이트⁷⁾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한다.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내용적·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팍’ 메뉴의 ‘냉전’ 콘텐츠를 분석하고⁸⁾ TNA에서 개발한 교사용 안내서⁹⁾를 참고하였다.

미국 NARA의 사례 분석에선 교육용 사이트인 ‘교사용 자료’ 사이트의 개요를 파악한 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교재 형식의 ‘기록 수업’ 메뉴¹⁰⁾에 제시된 콘텐츠 규모와 특징을 파악한다.

이중 전후 시기의 ‘매카시 의원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전신(Telegram from Senator Joseph McCarthy to President Harry S. Truman, 이하 매카시)’ 레슨 콘텐츠¹¹⁾를 대상으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내용적·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냉전’ 콘텐츠와 미국의 ‘매카시’ 콘텐츠는 모두 교수·학습자료용

형’ 콘텐츠 일부에는 학생들 스스로 역사연구용으로 활용하거나 교사들의 수업 연구용으로 개발된 형태의 콘텐츠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콘텐츠는 대부분 자료 제시형으로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형 기록정보 콘텐츠라고 칭할 수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미국의 ‘기록 수업’ 역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미국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가 대부분 ‘기록수업’과 같은 수업구성안(Lesson Plans)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영국 사례와의 비교를 위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7)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 [cited 2011.3]

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coldwar/> [cited 2011.3]

9) Ben Walsh, 『Teacher's Booklet-A Guide to the Learning Curve』, 200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teachers/teacher-booklet.html>

10) <http://www.archives.gov/education/lessons/> [cited 2011.3]

11) <http://www.archives.gov/education/lessons/mccarthy-telegram/> [cited 2011.3]

기록정보콘텐츠의 전형적 형태이다. 특히 영국의 ‘냉전’ 콘텐츠는 다른 ‘토픽’ 메뉴의 콘텐츠에 비하여 구조가 간결하고, 학습 방법 안내 및 학습 질문을 통한 학습 활동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구조이다. 미국의 ‘기록 수업’ 콘텐츠는 모두 동일한 구조여서 ‘냉전’과 관계된 현대사의 주제로 ‘매카시’를 선정하였다.

이들 콘텐츠 샘플만으로 콘텐츠의 내용적·구조적 특징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동일한 유형의 다른 주제 콘텐츠를 참고하면서 동질성을 발견, 내용적 구성 요소 및 구조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와 관련 연구 성과물을 참고하여 이론적 전개에 반영하였다.

2. 영국 TNA ‘토픽’ 메뉴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분석

1) 영국 TNA의 교육 사이트의 개요

영국 TNA의 교육 사이트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웹 사이트로, 주로 1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Key Stage 2~5)¹²⁾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영국의 역사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집합체로 106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를 8개로 구분¹³⁾하여 총 183개¹⁴⁾의 콘텐츠가

12) Key Stage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국가교육체계의 단계를 뜻하는 용어로서 단계 별 연령 구분은 다음과 같다. Key Stage 1: 5~7세, Key Stage 2: 7~11세(초등학교 단계), Key Stage 3: 11~14세(초등-중학교 단계), Key Stage 4: 14~16세(중학교~고등학교 단계), Key Stage 5: 16~18세(고등학교 단계). Key Stage 5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나이로 AS/A2 level 이라고도 한다. <Wikipedia>

13) 시기구분은 중세(1066-1485), 근대 초기(1485-1750), 제국주의 시대와 산업시대

개발되어 있다.

‘교육’ 사이트의 하위 메뉴는 ‘토픽(Topics)’, ‘레슨(Lessons)’, ‘워크샵(Workshops)’, ‘비디오 컨퍼런스(Videoconferences)’,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s)’, ‘팟캐스트(Podcasts)’의 6개 메뉴로 이중 지난 2009년 웹사이트 구조 개편과 아울러 추가된 ‘토픽’을 제외한 나머지 웹 사이트 메뉴는 ‘러닝 커브’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메뉴들이다.¹⁵⁾

이들 메뉴에 게시된 콘텐츠들은 모두 수업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학교 현장에 맞게 최적화되어 개발된 콘텐츠는 ‘토픽’의 일부와 ‘레슨’ 콘텐츠이다. 이 두 콘텐츠 유형 외에 ‘워크샵’, ‘비디오 컨퍼런스’, ‘가상 교실’ 콘텐츠는 ‘토픽’ 및 ‘레슨’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현장 체험 학습 및 원격 교육의 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도록 개발된 것이며, ‘팟캐스트’ 역시 학습자가 모바일기기에 다운로드 받아 역사적 주제에 관한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콘텐츠로 개발된 것이다.

‘토픽’ 메뉴는 기존의 ‘러닝 커브’의 ‘심층학습 주제(Exhibitions)’ 콘텐츠와 역사연구방법을 함양하도록 기획된 ‘포커스 온(Focus On)’ 콘텐츠를 승계한 것으로, 주로 다양한 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픽’ 메뉴의 콘텐츠는 주로 ○기록 포괄 범위의 심층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연한 질문 기반 접근 방식 ○학생들 스스

(1750-1850), 빅토리아 시대(1850-1901), 20세기 초반(1901-1918), 세계대전 중반기(1918-1939), 2차 세계대전(1939-1945), 전쟁 이후 시기(1945-현재)의 8개로 구분되어 있다.

14) 물론 TNA의 교육 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은 콘텐츠에 따라서 여러 시기에 걸친 주제 콘텐츠로 개발되거나 하나의 콘텐츠가 다른 방식으로 중복 활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콘텐츠의 구성을 약간씩 변경하여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목은 같으나 ‘토픽’용 콘텐츠와 ‘워크샵’용 콘텐츠로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중복 콘텐츠로 집계하였다.

15)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 및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teachers/teacher-booklet.htm> 참조.

로 사료를 해석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기회를 촉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¹⁶⁾

‘토픽’ 메뉴에 게시된 콘텐츠 중 일부는 직접 수업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교수·학습자료용’)되어 있고, 일부는 연구와 수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웹 자원’ 형태이다. 일차 사료를 자료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 역시 웹 자료로 간주할 수 있지만,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의 경우 반드시 교사용 지침서와 학습 활동(Activities)이나 활동지(Worksheets) 형태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콘텐츠의 학습 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콘텐츠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웹 자원 형과 구분한다. 반면 ‘웹 자원’ 형태의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에세이를 제시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일차 사료를 제시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관련된 추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관 자료를 풍부히 제시한다.

‘토픽’ 사이트에 게시된 총 39건의 콘텐츠를 ‘교수·학습자료용’, ‘웹 자원’, ‘게임형’으로 구분한 결과, ‘웹 자원’ 형태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는 12건, ‘게임형’ 콘텐츠 2건, 웹 자원과 게임형, 웹 자원과 가상현실 체험형 등 ‘복합형’이 2건 등이다. 이중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 목록만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토픽’ 메뉴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목록

번호	콘텐츠 목록	Key Stage
1	Crime and Punishment	2-5
2	British Empire	3-4
3	Civil war	3-5
4	Power, Politics and Protest	3-5
5	Victorian Nation	2-4
6	Focus on the Census	2-4

16) Ben Walsh, 『Teacher's Booklet-A Guide to the Learning Curve』, 200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teachers/teacher-booklet.html>, pp19~23

번호	콘텐츠 목록	Key Stage
7	Great War, 1914-1918	3-4
8	Britain 1906-18	구분 없음
9	Heroes & Villains	3-5
10	World War II	3-4
11	Home Front	2-3
12	Cold War	3-5

‘레슨’ 메뉴의 콘텐츠는 한 시기를 다루거나 흐름으로 해올 수 있도록 교과 과정과 연결된 별도의 콘텐츠로 일반적으로 한 차시 수업에 적합하게 개발된 것이다. 각 레슨에는 쉽게 인쇄할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화이트보드용으로 텍스트를 재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레슨’ 메뉴의 콘텐츠는 하나의 수업단위로 진행할 수 있는 기록조사 학습 활동으로, 기존 러닝커브의 ‘스냅 샷’ 사이트의 콘텐츠를 계승한 것이다. 이 콘텐츠는 현재 총 57개 개발되어 있으며 콘텐츠의 주제는 영국사의 주요 사건과 생활사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

‘레슨’ 메뉴의 콘텐츠는 ‘토픽’ 메뉴의 하위 콘텐츠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도 활용되며, ‘토픽’ 콘텐츠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형태의 구성 요소(예를 들면, 교사용 지침, 교육과정과의 연계, 학습 질문, 도움말 등)를 갖고 있어 별도의 구조 분석은 하지 않는다.

2) ‘토픽’ 메뉴의 ‘냉전’ 콘텐츠의 구조 분석

(1) ‘냉전’ 콘텐츠의 구성 및 내용

‘토픽’ 메뉴 중 차시 단위 교수·학습자료용으로 개발된 콘텐츠 중 우리 현대사와도 관련있는 ‘냉전(Cold War)’(KS 3-5)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살펴본다.¹⁷⁾

17)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coldwar/> [cited 2011.3]

‘냉전’ 콘텐츠는 11세에서 18세까지 두루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주로 냉전의 내적 작용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콘텐츠는 6개의 갤러리로 구성되었으며 각 갤러리 역시 유사한 구조의 사례 연구 2~4개로 구성되었다. 갤러리는 일차 사료를 통한 학습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사례 연구 하나는 1~2 차시 수업에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학습 주제에 부합하도록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서 심층적인 연구 수행에 적합하다.

‘냉전’ 콘텐츠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냉전’의 시작과 진행 및 해체의 과정을 갤러리의 핵심 질문으로 대체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갤러리 하위의 사례연구는 해당 핵심 질문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인물에 관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표 2> ‘냉전’ 콘텐츠의 구성(출전: Ben Walsh, 『Teacher’s Booklet』, p30)

<p>갤러리 1: 냉전이 실제로 1919-39년 사이에 시작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1: 러시아의 내전(Civil War) · 사례연구 2: 지노비에프(Zinoviev) 서신 · 사례연구 3: 뮌헨 협정(Munich Agreement) 	<p>갤러리 2: 전쟁 시기인 1941-1945년 영국, 미국, 소련 간의 유대는 어느 정도 강고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1: 대중들이 보았던 것 · 사례연구 2: 대중들이 보지 못했던 것 · 사례연구 3: 알타 회담 · 사례연구 4: 포츠담 회담
<p>갤러리 3: 누가 냉전을 일으켰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1: 1945-48년간 소련의 정책 · 사례연구 2: 처칠과 철의 장막 연설 · 사례연구 3: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원조 	<p>갤러리 4: 냉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1: 베를린 봉쇄와 공수 작전 · 사례연구 2: 한국전쟁 · 사례연구 3: 동유럽-헝가리의 1956년과 체코슬로바키아의 1968년 · 사례연구 4: 베를린 장벽
<p>갤러리 5: 핵 게임 - 어떻게 종결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1: 핵의 정치 · 사례연구 2: 1962년 쿠바 · 사례연구 3: 폭탄 금지 	<p>갤러리 6: 베트남 전쟁은 냉전의 전환점이었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1: 미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베트남에 가게 되었나? · 사례연구 2: 미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베트남에서 나오게 되었나?

아래 그림은 ‘냉전’ 콘텐츠의 홈페이지 화면이다. ‘토팍’의 콘텐츠는 심층 학습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콘텐츠별로 독자적인 웹사이트 형태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별 콘텐츠의 웹 화면에는 핵심 질문으로 표현된 갤러리 목록(갤러리1~갤러리 6)이 나열되어 있다. 웹 화면 아래쪽에는 웹 콘텐츠의 개발자, 자료 제공 기관, 저작권 관련 주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 이용자의 ‘피드백’ 사항, 콘텐츠의 구성 요소와 콘텐츠의 활용 방법, 이미지 파일의 크기 등을 알려주는 ‘지침’, 갤러리의 학습 목적과 교과연계 부분¹⁸⁾, 각 사례연구에서 사용된 일차 사료와 그중 핵심적인 일차 사료, 일차 사료를 활용한 학습 방법 등을 제시한 ‘교사용 가이드’, 관련 사이트의 일종으로 핵 무기 bunker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핵 bunker’ 등이 메뉴로 제공된다.



<그림 1> ‘냉전’ 콘텐츠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화면

6개의 갤러리 중 갤러리 1에 대해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교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갤러리 1은 갤러리 2~6을 연구하는데 있어 도입 부분, 즉,

18) ‘냉전’ 콘텐츠는 영국 TNA의 다른 콘텐츠와는 달리 연계된 교육과정 단원 대신 관련된 시험 단계만 명시하고 있다. ‘냉전’ 주제는 영국의 AS와 AS2 레벨의 시험에서 다루지고 있다. 영국의 교수·학습 자료용 콘텐츠는 대부분 소개 부분이나 교사용 가이드에서 연계된 교과 단원 및 시험 단계의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콘텐츠의 활용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냉전의 배경을 설명하는 단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심층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이나 교과 범위 이상으로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냉전에 대해 소개할 때 이 갤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학생들의 개별적인 연구나 코스웍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다.

갤러리 1은 ‘냉전이 실제로 1919년에서 1939년 사이에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갤러리 1은 냉전이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많은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냉전이 왜,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의 이슈로 제시하면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시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것을 주문한다.

갤러리 1의 사례 연구는 그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먼저 핵심 질문(Big Questions) 화면을 먼저 읽어 본 뒤, 각 사례 연구를 통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핵심 질문’ 화면은 사례 연구 1~3을 살펴본 뒤 냉전이 이미 1919-39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있는 지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갤러리 1의 각 사례 연구에는 4~5개의 일차 사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사례 연구 1에서는 총 5건의 일차 사료가 사용되었다. 학습자들은 이 일차 사료들이 1918~21년경 영국과 러시아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제시하는지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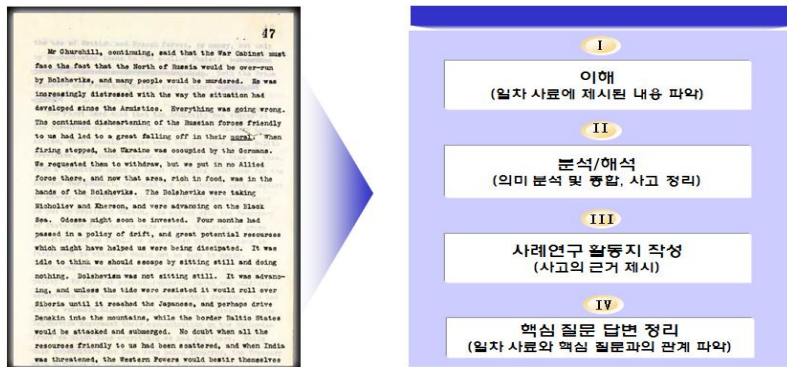
<그림 2> ‘냉전’ 콘텐츠 갤러리 1의 사례연구 1, ‘러시아 내전’ 화면

‘냉전’ 콘텐츠의 내용 분석 결과에서 웹 화면별로 상응하는 학습 절차를 도출할 수 있다. ‘냉전’ 콘텐츠의 경우 메인화면부터 시작하면 총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메인 화면에서 일단 갤러리 목록을 선택한 뒤, 학습자들은 각 갤러리의 메인 화면에서 배경 설명을 읽은 뒤 갤러리의 핵심 질문을 파악하게 된다.

다음으로 핵심 질문에 관한 학습 과제를 핵심 질문 화면에서 확인한 뒤, 각 사례연구로 진행할 준비를 한다. 갤러리 메인 화면에서 사례연구를 선택한 뒤, 사례 연구 화면에서 해당 사례연구의 역사적 사건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을 파악한다. 이러한 과제에서 학생들은 역사가들이 일차 사료를 통하여 역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학습하게 되며, 핵심 질문으로 표현된 학습 주제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게 된다.

선택된 사례연구 화면에선 순차적으로 제시된 일차 사료의 섬네일 이미지를 클릭한다. 시간상의 한계로 모든 일차 사료를 검토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일차 사료를 ‘교사용 가이드’에 지정하여서 교사로 하여금 적절하게 수업 시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놓았다.



<그림 3> 학습 활동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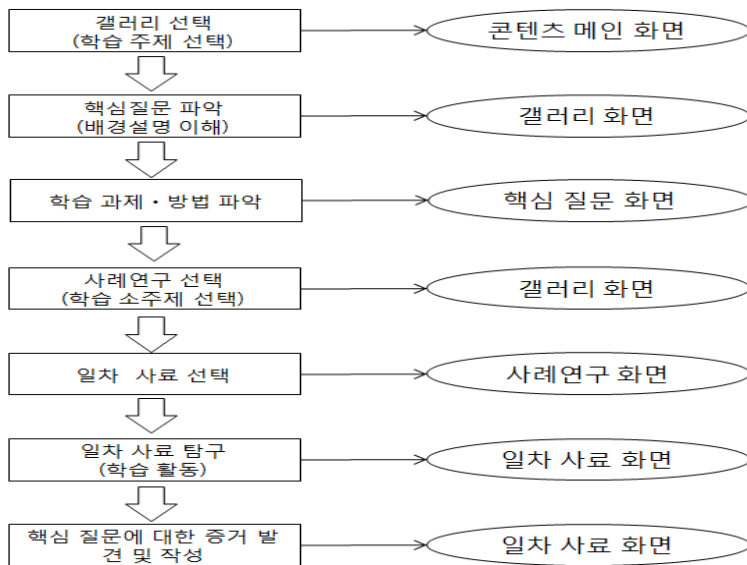
19) 핵심 질문 화면은 사례연구 화면과 동일 계층으로 계산하였고, 활동지 첨부 파일은 제외하였다.

일차 사료의 화면에선 각 일차 사료별로 <과약, 분석 및 이해, 사례연구 활동지 작성, 핵심 질문에 대한 증거 발견> 등의 순서로 학습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일차 사료를 제시된 학습 활동의 순서대로 탐구한 뒤 일차 사료에 발견된 증거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일차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 질문이나 학습 과제의 형태로 제시된다.

사례 연구의 활동지는 사례연구에 제시된 일차 사료에서 갤러리의 핵심 질문에 관한 증거 즉 답변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면 그 증거를 작성하도록 사례연구별로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와 같은 콘텐츠의 학습 경로를 거치게 되면, 학습자들은 해당 콘텐츠에 제시된 일차 사료를 통하여 해당 콘텐츠의 핵심 질문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핵심 질문과 관련된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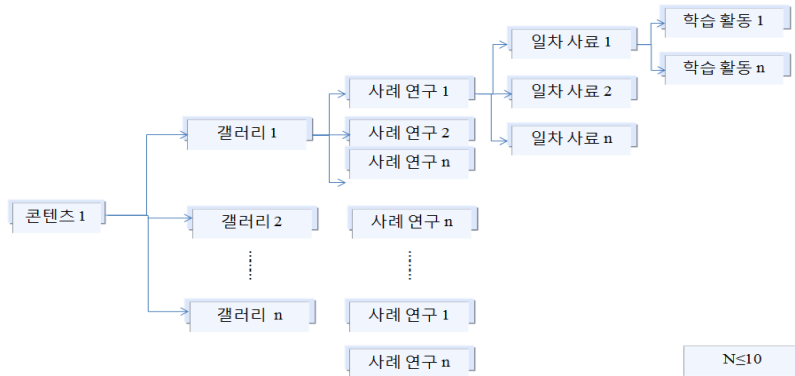


<그림 4> '냉전' 콘텐츠의 학습 경로

(2) '냉전' 콘텐츠의 구조 및 구성요소

교과서의 서술 양식은 학습자의 역사 이해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 구성 체제나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이 중요해진다.²⁰⁾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도 수업의 교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내용 구성 체제로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TNA에서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도 이와 같은 교재 구성의 원칙에 따라 콘텐츠의 유형별로 일관된 내용 구성 체제로 성립되어 있다.



<그림 5> '냉전' 콘텐츠의 구조

'냉전' 콘텐츠는 '갤러리-사례연구-일차 사료-학습 활동'의 기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픽' 메뉴의 다른 콘텐츠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콘텐츠 제목 하위로 핵심 질문으로 분화된 갤러리, 갤러리의 핵심 질문을 탐구할 수 있는 사건 및 인물 등으로 이루어진 사례 연구-사례 연구에 제시된 사건이나 인물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일차 사료-일차 사료를 활용한 학습 활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양호환,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학생의 역사이해」, 『역사교육』 59, 1996

갤러리와 사례연구는 학습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일차 사료는 학습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학습 자료, 학습 활동은 일차 사료인 학습 자료를 매개로 수행할 수 있는 탐구과제 또는 수행활동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토팍’의 콘텐츠는 일차 사료 하나당 메인 화면에서 대개 4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 화면 계층별로 구성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콘텐츠별로 일부 구성요소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요소 중 콘텐츠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 즉 갤러리 및 사례연구의 핵심 질문과 사례연구별로 제시되는 일차 사료와 학습 활동, 활동지 등의 부분은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원활한 수업 진행에 필요한 지원 도구, 즉 연대표, 용어집 등 부가적인 정보를 웹 화면마다 제공하여 다른 화면으로 클릭하지 않고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차 사료 화면에는 다른 일차 사료로 이동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일차 사료의 스캔 이미지, 일차 사료에 대한 기술 정보, 해당 일차 사료의 내용을 글로 옮겨 학습자들이 보기 쉽도록 한 ‘전사록(transcript)’, 해당 사료에 나오는 인물 및 사건에 대한 간략 정보를 제시하는 ‘도움말(Useful Notes)’ 등이 제시된다.

웹 화면 계층별로 중복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웹 화면별 핵심 정보와 부가 정보로 구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웹 화면 구성 요소의 구분은 이후 실제 콘텐츠의 레이아웃 설계 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즉, 콘텐츠의 웹 화면 설계 시 핵심 정보는 빠트리지 않고, 부가 정보의 경우 화면 인터페이스의 심미성 및 편의성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다. 심성보(2007)는 이와 같은 콘텐츠 데이터의 구성요소를 기능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용 추가정보와 본연의 기록정보로 구분한바 있다.²¹⁾

21) 심성보, 같은 글, p46



<그림 6> '냉전' 콘텐츠의 웹 화면 계층별 구성 요소

(3) '냉전' 콘텐츠에 사용된 일차 사료 분석

'냉전' 콘텐츠의 갤러리별 일차 사료 목록과 그 유형을 분석한 결과, 냉전 콘텐츠는 총 6개의 갤러리에 19개의 사례연구, 108건의 일차 사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례연구가 일차 사료의 건수에 따라 1~2차시로 나누어서 수업할 수 있는 분량임을 감안하면, '냉전' 콘텐츠는 총 25~30차시 정도의 규모로 개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에서 '냉전'과 관련하여 3쪽 정도를 다루고 있고²²⁾, 6·25 전쟁에 관해서는 6쪽 정도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현대사 전체에 '냉전'과 관련한 수업 시수는 2차시²³⁾에 불과하여, 영국의 학교에서 실제로 '냉전' 콘텐츠를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국립 보존 기록관리기관에서 상당량의 학습 참고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냉전' 콘텐츠에 사용된 일차 사료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기록 유형은 크게 문서류와 시청각 기록으로 구분되며, 문서류가 시청각 기록에 비해 압도

22) 비상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011 기준

23) 비상출판사 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 2011, p138 참조

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텍스트가 포함된 문서류 기록과 시청각 기록이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 '냉전' 콘텐츠에 사용된 기록 유형별 건수

유형	문서류														시청각류				
	의사록	보고서	노트	문서	서신	연설문	언론브리핑	인터뷰	언론보도	필름자막	전신	조약문	회고록	리플렛	시사만화	뉴스필름	포스터	지도	사진
건수	8	26	7	6	3	9	7	1	7	1	4	1	1	1	12	5	4	3	2
합계	82														26				

즉, 시청각 기록이 학생들의 흥미와 시선을 끄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습 활동의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정의적인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효과적이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석 및 재구성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활동을 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따라서 일차 사료의 난해성 때문에 시청각 기록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은 역사 교육의 목표와 관련지어 볼 때 바람직한 콘텐츠의 구성 방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 유형별 건수는 내각의 의사록, 회의록, 보고서 등 정부의 공공 기록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시청각 기록 중에는 시사만화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보도사진 보다 더 자주 활용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함축된 시사만화가 분석·추론·비판·종합과 같은 인지 활동에 더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사만화는 발행 당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사료로서, 재미있는 그림과 생활 속에서 쓰이는 구어체의 문장으로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며 이해와 기억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와 그림의 복합매체이다.²⁴⁾ 이종경

24) 이종경, 박영신, 「역사수업자료로서의 시사만화연구」, 『교과교육학연구』,

(2004)은 시사만화의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여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부분에 시사만화를 활용한 역사수업을 확대 실시할 것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적 기록은 총 108건 중 단 4건으로 회고록, 사적 편지, 사적인 노트 등이었는데, 주로 전쟁과 관련된 회고담, 핵심 인물의 개인적 서신, 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미국 시민의 편지 등이 사용되어서 공공 기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수는 콘텐츠의 성격상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편, TNA는 ‘냉전’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 소장 기관의 기록 특히 미국 NARA나 외국 언론 등의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당시의 국제 정서를 읽을 수 있는 기록을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관에서 소장하지 않는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선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미국 NARA ‘기록 수업’ 메뉴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분석

1) 미국 NARA의 교육 사이트 개요

미국 NARA는 홈페이지의 ‘교사용 자료(Teacher's Resources)’ 사이트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²⁵⁾ 미국 NARA 역시 지난 2010년 12월 홈페이지 디자인을 갱신²⁶⁾하면서 ‘교사용 자료’에서 우수 수업활동(Featured Activity), 우수 전시(Featured

제8권 3호, 2004, pp331~346

25) <http://www.archives.gov/education/>, [cited.2011.3]

26) <http://www.archives.gov/press/press-releases/2011/nr11-23.html> [cited.2011.3]

Exhibit), 전문능력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등의 세 메뉴로 크게 구분하여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기존의 ‘기록 수업’ 메뉴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우수 수업 활동을 ‘교사용 자료’의 맨 앞에 배치하여 일차 사료로 하는 수업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²⁷⁾

‘교사용 자료’에서 수업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기록 수업’이다. 그 외에 ‘온라인 전시 콘텐츠’는 영국 TNA의 웹 자원 형태로 제공되는 ‘토픽’ 콘텐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미국 NARA가 ‘기록 수업’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강의, 상연, 사료 분석, 개별 및 집단 연구 등을 통하여 역사, 사회과학, 인문학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넓히고 역사 기록을 통한 역사 연구의 기법을 연마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을 장려하기 위함”이다.²⁸⁾

‘기록 수업’은 8개 컬렉션의 65개 콘텐츠로 개발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 구성은 NARA에 소장되어 있는 일차 사료의 사본과 미국의 역사 교과 표준(National History Standards), 시민정부 교과표준(National Standards for Civics and Government) 등을 연계한 수업 활동에 관한 소개이다. 8개 컬렉션은 미국 역사의 시기 구분과 일치하는 주제에 관한 컬렉션이며, 하위 범주에서 ‘레슨(Lessons)’ 단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시기 구분에 해당되는 컬렉션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사례 분석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매카시’ 콘텐츠는 ‘전후 미국(1945~1970년대 초반)’ 컬렉션 하위에 있다. ‘전후 미국’ 컬렉션은 14개의 레슨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의 컬렉션은 2차 대전 종전 후 매카시 논쟁, 한국 전쟁, 핵무기, 스푸트니크 호 발사, 마틴 루터 킹 목사, 베트남 전쟁 등 미국 역사에 중요한 사건과 인물

27) 홈페이지 갱신 이전, 미국 NARA의 교육 프로그램은 TNA와 달리 역사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NARA에 대한 안내, 현장 견학 및 지역 방문 워크숍, 비디오 컨퍼런스, NARA와의 협력 작업 등에 대한 안내, NARA의 기록물 검색 방법 등의 정보를 모두 교육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등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의 정보 이용 및 기관에 대한 소개에 치중하였다.

28) <http://www.archives.gov/education/lessons/> [cited.2011.3]

에 관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기록 수업’의 시기별 컬렉션 목록 및 ‘전후 미국’의 레슨 콘텐츠 목록

컬렉션 및 레슨 제목	레슨 개수
Revolution and the New Nation (1754-1820s)	7
Expansion and Reform (1801-1868)	8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1850-1877)	4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United States (1870-1900)	8
The Emergence of Modern America (1890-1930)	9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1929-1945)	11
Postwar United States (1945 to early 1970s)	14
The U.S. Recognition of the State of Israel Telegram from Senator Joseph McCarthy to President Harry S. Truman The United States Enters the Korean Conflict Photographs and Pamphlet About Nuclear Fallout Documents Related to Brown v. Board of Education Frontiers in Civil Rights: The Dorothy Davis Case Order of Argument in the Case,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 Act of Courage, The Arrest Records of Rosa Parks Jackie Robinson: Beyond the Playing Field Memorandum of a Conference with President Eisenhower after Sputnik The Many Faces of Paul Robeson Founding Documents of the Peace Corps Court Documents Related to Martin Luther King, Jr., and Memphis Sanitation Workers The War in Vietnam: A Story in Photographs	
Contemporary United States (1968 to the present)	4

2) ‘기록 수업’ 메뉴의 ‘매카시’ 콘텐츠의 구조 분석

(1) ‘매카시’ 콘텐츠의 구성 및 내용

‘매카시’ 콘텐츠는 매카시즘의 장본인인 매카시 상원의원이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에게 보낸 전신과 트루만의 미발신 답신을 통하여 2차 대전 이후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적 논쟁이었던 매카시즘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

고 있다.

‘레슨’ 콘텐츠에서 수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수업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수업자료는 먼저 일차 사료의 섬 네일 이미지나 링크로 제시되는 ‘문서 묶음(The Documents)’, 연계된 교육과정, 수업 활용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수 활동(Teaching Activities), 일차 사료에 대한 정보와 내용 파악을 이해하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파일 형태의 활동지, ‘우리의 문서(OurDocuments.Gov)’ 사이트²⁹⁾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매카시’ 콘텐츠의 웹 화면

이 콘텐츠에선 미 국무성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발언으로 매카

29) 이 사이트는 미국 역사에 기초가 되는 100건의 기록 목록 및 기록에 대한 소개 사이트이다. ‘우리의 기록’ 사업은 ‘국사의 날(National History Day)’, 미국 보존기록관리기관인 NARA, ‘자유연합(USA Freedom Corps)’이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http://www.ourdocuments.gov/index.php?flash=true&>) [cited.2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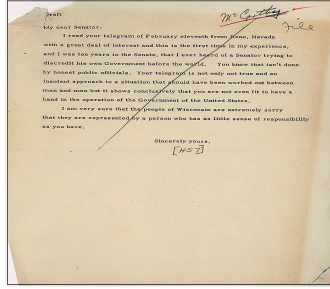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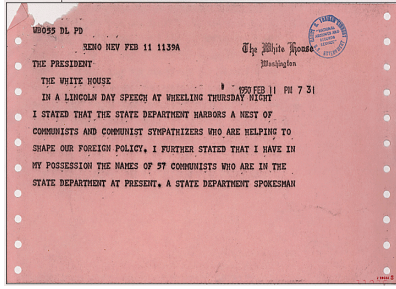
시즘 논쟁을 야기 시킨 조지프 매카시 전 상원의원이 1950년 2월 11일 발언 이틀 뒤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전신과 트루만 대통령이 답신으로 작성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서신을 일차 사료로 제공한다.

이 6쪽 짜리 전신에서 매카시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무성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 57명의 이름까지 알고 있으며, 트루만 대통령에게 국무성 내에서 인사 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의회에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트루만 대통령은 매카시와 같은 사람은 미국 정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그가 다시 선출된다면 매우 유감일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작성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았다.

이 콘텐츠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일차 사료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서 분석 및 비교와 대조 등의 활동을 거쳐 연구 및 토론 등의 학습 활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활동지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활동을 정리한다. 이 콘텐츠에서 제시하는 학습 활동은 크게 분석, 연구와 토론, 비교 및 대조, 전체 토론, 심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콘텐츠의 수업 자료는 미국 역사교육과정 및 시민정부 교육과정과도 연계되어 있어 역사 교과와만 연계되어 있는 TNA의 콘텐츠에 비하여 차별점을 주고 있다. 시민정부 교육과정이나 다른 문헌 분야와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 사료를 활용한 학습 활동의 수준은 높다.

학습 활동은 매카시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전신이나 매카시의 당시 상원의회 위원회에서의 심리 사건을 자료로 활용하여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 미국 사회에 팽배해있던 정치적 논쟁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육군으로 대표되는 행정부, 관련 헌법 조항으로 지배하는 사법부, 의회의 입법부로 유지되는 3부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한 정치사회 교과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림 8> '매카시 상원 의원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전신(1/6, 좌)'과 트루만 대통령의 답신(우)

수업의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이 레슨 콘텐츠는 한 두 차시의 수업에 최적화하여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심화 활동으로 확장하여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기획되었기 때문에 이 레슨 콘텐츠는 단지 한 차시에 그친 수업안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조사연구 활동까지 포함한 여러 차시의 수업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 제시 면에서는 일차 사료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매카시즘 논쟁을 다루는 당시의 미국 정부 3부 간의 권력 분립의 문제, 당시의 언론 보도 상황과 연관 지은 연구 및 토론, 정치권력의 탄압 사례에 대한 비교 및 대조, 매카시즘이 당시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심화 활동 등 보다 고차원적인 학습 활동으로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다른 레슨 콘텐츠에서는 NARA의 교육전문가인 Lee Ann Potter가 제시한 바 있는 '일차 사료를 수업에 통합하는 15가지 방법'³⁰⁾에 기반하여 여러 교과에 걸쳐 창의적 글쓰기(전시 스토리 작성, 사진 선별, 다른 그룹의 전시 리뷰 작성), 브레인스토밍, 창의적 표현(시나 노래 창작), 드라마틱 리딩(연설 따라하기), 상상 대화하기, 연대표 작성하기, 정부 문서 작성하기 등의 여러 형

30) Lee Ann Potter, "OurDocuments.gov-Teaching with Documents 'What are they'", *Social Education* 66(7), pp390~399,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2002

태로 일차 사료를 응용한 학습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 활동은 TNA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인 학습 과제나 학습 질문 제시의 형태가 아니라 교사가 선택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가 아닌 교수·학습 구성안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심성보, 2007)

다음은 ‘매카시’ 콘텐츠의 수업 자료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수 활동’을 표로 구조화한 것으로 이 수업 자료의 ‘교수 활동’은 영국 TNA의 ‘교사용 가이드’와 같은 수업 지원 도구로 수업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5> ‘매카시’ 콘텐츠의 수업 자료 중 교수 활동의 내용

교육과정 연계	미국역사교육과정	시기 9-전후 미국(1945~1970년대 초반): 표준 3A-2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 정치적 논쟁에 대한 이해
	시민·정부 교육과정	표준 III.C.1. -헌법의 어떤 조항이 정부의 3부 간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지 설명하라.
헌법 조항과의 연계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와 반역죄로 결정될 수 있는 행위를 다루는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상호작용	
범교과 연계	역사, 정부, 문학 교과 동료들과의 활동	
학습 활동		
1.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신을 두 부분(1~5쪽과 6쪽)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학생에게 각 부분의 전신만을 읽게 한 뒤 두 집단 학생들의 내용 분석 및 비교 당사자인 트루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글쓰기 제시 반 전체 공유 	
2. 연구와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카시 해임을 의결한 1954년 의회 심리 조사 토론 결과의 보고서 작성 언론 상황과 연관 지은 토론 진행 	
3. 비교, 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집단으로 학생 분류, 탄압받은 소수 집단의 사례 부여 사례에 대한 연구 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역사가의 서술 판단 도표 작성 지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토론 진행 	
4. 전체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력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 특권과 헌법 수호권 활용에 대한 설명 정치 통제, 행정 특권 고수와 관련된 토론 진행 	
5. 심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연구조사 과제 제시 	

일차 사료를 분석한 결과는 콘텐츠 주제에 관계없이 통일된 활동지에 작성하게 된다. 활동지의 1번에서 4번까지는 일차 사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기입해야 하고, 5번과 6번은 일차 사료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추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사고를 정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 활동지는 기록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수업 내용, 즉 학습 주제와는 관련성이 적으며 콘텐츠 주제에 상관없이 내용이 동일하다.

<표 6> 레슨 콘텐츠의 문서 분석 활동지(출처: 미국 NARA의 ‘매카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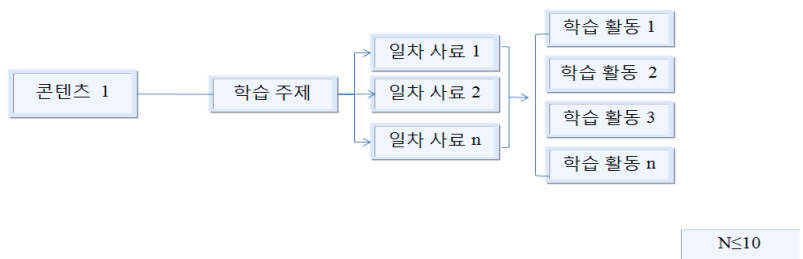
문서 분석 활동지				
1.	문서 유형(하나만 체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신문 -편지 -특허장 -비망록</td> <td style="width: 33%;">-지도 -전신 -연론 보도 -보고서</td> <td style="width: 33%;">-홍보지 -의회 기록 -센서스 보고서 -기타</td> </tr> </table>	-신문 -편지 -특허장 -비망록	-지도 -전신 -연론 보도 -보고서	-홍보지 -의회 기록 -센서스 보고서 -기타
-신문 -편지 -특허장 -비망록	-지도 -전신 -연론 보도 -보고서	-홍보지 -의회 기록 -센서스 보고서 -기타		
2.	문서의 고유한 물리적 성질(하나 이상 체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흥미 있는 편지 말머리 -필사본 -타자문 -봉인</td> <td style="width: 33%;">-기호 -‘수령된’ 우표 -기타</td> </tr> </table>	-흥미 있는 편지 말머리 -필사본 -타자문 -봉인	-기호 -‘수령된’ 우표 -기타	
-흥미 있는 편지 말머리 -필사본 -타자문 -봉인	-기호 -‘수령된’ 우표 -기타			
3.	문서 생산 날짜:			
4.	문서 생산자(Author 나 Creator): 지위(직함):			
5.	문서의 청중은?			
6.	문서 정보(여러 가지 방법으로 A~E까지 답변 가능): A. 생산자가 말한 것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사항은? B. 이 문서가 작성된 이유는? C. 문서의 어떤 증거가 이 문서가 작성된 이유를 말해주는지? 문서로부터 인용하십시오. D. 문서가 작성된 시기의 미국의 삶에 대해 말해주는 것 두 가지 나열 E. 문서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질문을 하시오.			

(2) ‘매카시’ 콘텐츠의 구조 및 구성 요소

‘매카시’ 콘텐츠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기록 수업’ 콘텐츠는 단일

한 구조를 띄고 있다. 즉, 콘텐츠의 제목, 배경 설명, 일차 사료 섬 네일 이미 지나 링크, 참고 자료, 수업 자료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스크롤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 수업 자료에는 연계 교육과정 단원에 대한 언급, 수업 활용 방법 및 학습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은 교수 활동, 문서분석 활동지, ‘우리의 문서(OurDocuments.Gov)’ 사이트 링크 등이 제공되어 교사가 가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사용 콘텐츠이다. 콘텐츠의 ‘배경 설명’과 문서 분석 활동지는 모두 교육 전문가가 집필, 개발하였다.

‘기록 수업’ 콘텐츠는 교사용 수업 자료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TNA의 콘텐츠에 비하여 게임형이나 애니메이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는 찾아볼 수 없다. TNA에 비하여 구조도 단순하고 구성요소 역시 단순하다.



<그림 9> ‘매카시’ 콘텐츠의 구조

학습 주제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문서 분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활동지를 개발한 것은 일차 사료의 분석 능력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NARA와 같은 보존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일차 사료에 대한 분석용 활동지를 제공하여 일차 사료라는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일차 사료에 함축된 증거를 발견하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서 사료 외에도 사진, 시사만화, 포스터, 지도, 공예품, 동영상, 음성기록에 대해 별도의 활동지가 개발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 구조는 비슷하다. NARA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록의 유형을 소개할 때 유형별 활동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³¹⁾

또한 일차 사료에 대한 기본 정보로서 일차 사료에 대한 ARC 식별 번호와 소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카시’ 콘텐츠를 비롯, 모든 ‘기록 수업’ 콘텐츠의 구성 요소를 표로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교사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를 두기 보다는 교사용 참고서 목적으로 단순하고 일관되게 개발되었으며, 교사용 지침 격인 ‘수업 자료’ 부분을 별도의 링크 상자로 개발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7> ‘매카시’ 콘텐츠의 구성 요소

구성요소		설명
배경 설명		콘텐츠 주제와 일차 사료 관련된 역사적 배경 서술
배경 설명의 참고 자료		배경 설명에 참고했던 자료 인용주
일차 사료 (섬 네일 이미지/링크)		일차 사료의 섬 네일 이미지나 (일차 사료가 많을 경우) 링크 제공
일차 사료 확대 이미지		일차 사료에 대한 확대 이미지로 출력 가능
일차 사료 기술 정보		일차 사료의 보존기록관리기관 기술 정보와 ARC 식별번호
수업 자료	일차 사료 링크	해당 콘텐츠 아래 쪽에 제시된 일차 사료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연계 교육과정	연계된 교육과정 단원에 대한 제시(교수 활동 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음)
	교수 활동	일차 사료를 기반으로 가능한 수업 방법에 대한 상세 제공
	문서분석 활동지	일차 사료의 기본 정보와 내용에 대한 분석용 워크시트
	‘우리의 문서’ 사이트 링크	‘우리의 문서’ 사이트 홈페이지로의 링크 일차 사료를 활용한 추가 교수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31) <http://www.archives.gov/education/lessons/worksheets/> [cited 2011.3]

(3) '매카시' 콘텐츠에 사용된 일차 사료 분석

단 두 건의 일차 사료를 활용하는 '매카시' 콘텐츠를 비롯하여, 다른 '기록 수업' 콘텐츠에 제공된 일차 사료의 수는 한 화면에 스크롤해야 하는 웹 화면 규모상 그리 많지 않다. 주요 일차 사료는 대개 5건 이내로 제공된다. 여러 페이지로 된 일차 사료의 경우 페이지별로 링크를 달아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링크를 제공하여 기록이 풍부한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게 한다.

일차 사료의 유형 역시 대부분 문서 사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베트남 사진전과 같이 특정 유형의 기록에 대한 콘텐츠일 경우에는 사진이 주요 문서로 제공되기도 한다.

4.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

1) 콘텐츠 구성의 일관성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는 학생들의 역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 일관성 있는 동일한 내용 구조를 띠고 있다. 때문에 '학습주제-학습 과제-학습 자료-학습 활동'과 같은 교과서의 내용 구성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

영국 TNA와 미국 NARA의 콘텐츠 구조 모두 대체로 일관된 내용 구성 체제를 띠고 있는데, 영국 TNA는 학습 자료인 일차 사료별로 학습 질문이나 과제를 정형화된 형태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학생의 답변이나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반면 미국 NARA의 경우 제시한 일차 사료별로 다

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을 다각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영국 TNA의 기록정보콘텐츠는 학생들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e-러닝 형태의 콘텐츠로 개발되었다면, 미국 NARA의 경우는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기 이전, 일차적인 재구성 작업을 전제로 하는 수업 구성안 형태로 개발되었다.

2) 일차 사료의 원활한 해독을 위한 서비스

영국과 미국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핵심은 이전에는 TNA와 같은 보존기록관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접할 수 없었던 일차 사료의 생생함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존기록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교과서의 교육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일차 사료들의 원문 이미지를 더욱 생생하게 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서 사본을 복제하여 학습 자료로 삼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일차 사료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도구로 영국 TNA의 경우 일차 사료별 ‘전사록’, ‘용어집’, ‘도움말’ 등의 보조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NARA의 경우는 일차 사료의 사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사록 대신 확대 및 인쇄 기능만 제공하고 일차 사료에 대한 배경 설명 및 교육 방법을 상세히 제공하는 편이다.

3) 콘텐츠 간의 연계 활용 권장

영국과 미국 모두 기록정보콘텐츠의 학령간·교과간 연계 활용을 권장하

고 있다. 영국 TNA의 경우는 주요 단계별로 2~3단계에 걸쳐 활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TNA의 콘텐츠는 단일 단계별 콘텐츠(75개)에 비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수(108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역사 교육과정이 같은 주제에 대해 초등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또한 ‘토픽’ 및 ‘레슨’용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현장 체험학습 및 원격 교육의 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워크샵’, ‘비디오 컨퍼런스’, ‘가상 교실’의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의 콘텐츠를 ‘토픽’의 하위 사례연구의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형태로 연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과목에 걸쳐 범교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NARA의 ‘기록 수업’의 수업자료에서 제시하는 연계 교육 과정에는 역사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시민 정보 교육과정 표준’ 및 ‘헌법 조항과의 연계 부분’까지 명시함으로써 해당 콘텐츠를 여러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대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를 여러 학령 및 과목에 걸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유형의 기록정보콘텐츠간에 연계 활용한다는 점은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문서 사료 위주의 일차 사료 활용

이번 사례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국 TNA의 ‘냉전’ 콘텐츠와 미국 NARA의 ‘매카시’ 콘텐츠의 경우 사용된 일차 사료는 주로 문서 사료 위주로 구성되었다. 물론 시청각 자료만으로 콘텐츠를 구성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지만, 시청각 자료만으로 콘텐츠를 구성한 경우에는 현재 삶의 비교나 만평을 통한 추론과 같이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다.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콘텐츠의 포괄 시기가 비교적 현대에 해당되어

시청각 기록 등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다수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일차 사료의 유형이 문서 사료 위주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시청각 기록이 주는 메시지의 제한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육학계에서는 ‘사료 교재’란 문서 사료를 지칭하고 사진 및 그림은 ‘시청각 교재’를 가리킬 만큼 문서 사료의 비중은 크다. 사진은 사료와는 달리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주며, 그림은 텍스트로 알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만 (문서) 사료는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과거의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원천이며, 교과서를 제외하고 가장 널리 역사 수업에 사용되어온 교재이다.³²⁾ 즉, 사진과 그림으로만 전달할 수 없는 상황 너머의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매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컬렉션 분석을 통하여 해당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문서 사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며, 문서 사료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국 TNA는 시청각 기록 중에서도 시사만화의 활용 비중이 높다. ‘이해와 기억에 효과적인 문자와 그림의 복합 매체’라는 시사만화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우리의 콘텐츠 개발 방향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교육 과정과의 연계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은 특히 교사용 가이드(영국 TNA)나 교수 활동(미국 NARA)과 같은 구성요소에서 해당 콘텐츠의 수업 소요 시간 및 수업 활동에의 활용 방안 및 활용 목표 등을 제시하면서 연계된 교육과정(혹은 시험 단계)의 특정 단원 및 교육 목표를 상술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교육 과정과의 연계는 교실 수업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만

32) 최상훈, 이영효, 김한중, 강선주 공저,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서울: 도서출판 「책과함께」, 2007, pp141~170

아니라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를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5. 맺음말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적 시사점 외에도 두 나라의 교육용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콘텐츠 서비스를 기획할 때 시기구분 및 다량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국 TNA와 미국 NARA 모두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 웹 상에서 서비스해왔기 때문에 그간에 축적된 콘텐츠가 시기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다량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가기록원과 같은 국립 보존기록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의 시기별로 다량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차 사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일차 사료를 통한 증거 발견 능력을 키우고 교육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NARA의 경우 일차 사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할 것을 권장한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일차 사료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육 전문가와의 협력 하에 국내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에는 모든 수준의 학습 활동에 내포된 학습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증거 발견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차 사료를 활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은 일차 사료의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자체적 난해성 때문에 수업에 활용하려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어려운 교재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 역사교육과정에선 제7차 교육과정 부터 교과서에 ‘읽기 자료’와 같은 형태로 일차 사료를 통한

학습을 부분적으로 시도해오고 있으나 교과서라는 지면과 매체의 한계를 내재한 상태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교사 1인이 다수의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일차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려면 일차 자료의 난해성을 덜어주고 학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교육용 지원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존기록관리기관이 앞장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한다면, 교과서라는 매체의 한계성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의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기록관리기관을 찾는 고객군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과 같은 보존기록관리기관이 본격적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앞선 사례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structures of Archival Contents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Focusing on the TNA of UK
and the NARA of USA**

Lee Eun-Yeong

Archival contents service for education is now a major service program in a foreign National Archives.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eir archival contents services in more depth-analysis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our contents.

My study is based on the summary of the Homepage Sites for Education of the TNA of UK and the NARA of USA. And also a depth-case study on structures of the samples, 'Coldwar' contents of the TNA and the 'McCarthy' contents of the NARA.

As a results, first, the formats of archival contents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should be in consistent contents structures like a standard textbooks. Second, archival contents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certainly have to support original images of primary resources and educational kits in order to read easily primary sources. Third, given the costs of development, it's desirable for archive to develop archival contents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in the way of cross-use by age and curriculum. Forth, when selecting primary sources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priorities have to be given to the text-sources in the light of learning purposes for history education. Fifth, National archives must develop archival contents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standard curriculums in order to promote a nation-wide use.

Key words: Archival Contents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Primary Sources, Learning Materials, Learning Questions, Teaching Activities, Curriculum Standards, TNA, NARA, ‘Coldwar’ contents, ‘McCarthy’ contents

